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 유치 및 집적화 성공사례

김 칭 우\*  
 최 정 철\*\*  
 박 기 찬\*\*\*  
 이 원 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2019년말 누적신고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27억 7500만 달러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FDI 총액 183억 달러의 7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투자유치의 역할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2003년도 당시 2만 5,000명에 불과했던 IFEZ 역내 인구는 2019년 말 현재 36만명 이상으로 급증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3개사에서 87개사, 입주 사업체는 673개에서 3,375개로 각각 늘어났다. 본 연구는 IFEZ가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 선도 도시로서 동북아의 지식 및 혁신 성장 허브화 전략을 탁월하게 구현해 온 도전적 과정과 혁신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의 미래는 물론 타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쟁력 비교와 운영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SER-M 모델'을 적용하여 개발주체로서 인천광역시 및 IFEZ청장(Subject: S), 인천의 물류산업 인프라 및 투자유치 환경(Environment: E), 핵심역량으로서 교통 인프라(Resource 1: R1) 및 교육 인프라(Resource 2: R2), 그리고 주요 산업체의 유치활동 메커니즘(Mechanism: M) 등으로 구분하여 역대 시장의 게임기간별로 역사적 시련과 성공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03년 출범한 IFEZ의 성공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시장이 계속 변경되에도 불구하고, 항만(Seaport)과 공항(Airport)의 핵심역량을 Tri-port, Penta-port 정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온 역대 시장 및 IFEZ 청장 등 주체 집단의 일관된 노력과 중앙정부와의 선순환적 협업 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트라이포트(Tri-port), 펜타포트(Penta-port), 외국인직접투자(FDI), SER-M 모델

### 1.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한국의 경제자유구역(FEZ)은 1997년 IMF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관세자유지역 도입에 의한 물류산업 활성화정책과 북한의 개성경제특구 및 신의주경제특구에 자극받아 출발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인천지역은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통합되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인천항은 2003년,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의 요체는 한국의 주요 공항 및 항만을 동아시아의 주요 물류 거점으로 홍보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주요 제

논문접수일: 2020. 11. 22. 1차 수정본 접수일: 2021. 01. 12. 게재확정일: 2021. 01. 25.

\* 인천일보 경제부장, 물류학 박사(chingw@incheonilbo.com), 제1저자

\*\* 인하대학교 교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외이사(215213@inha.ac.kr), 교신저자

\*\*\* 인하대학교 교수, 지속경영학회 회장(kichan@inha.ac.kr), 공동저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wjlee1@korea.kr), 공동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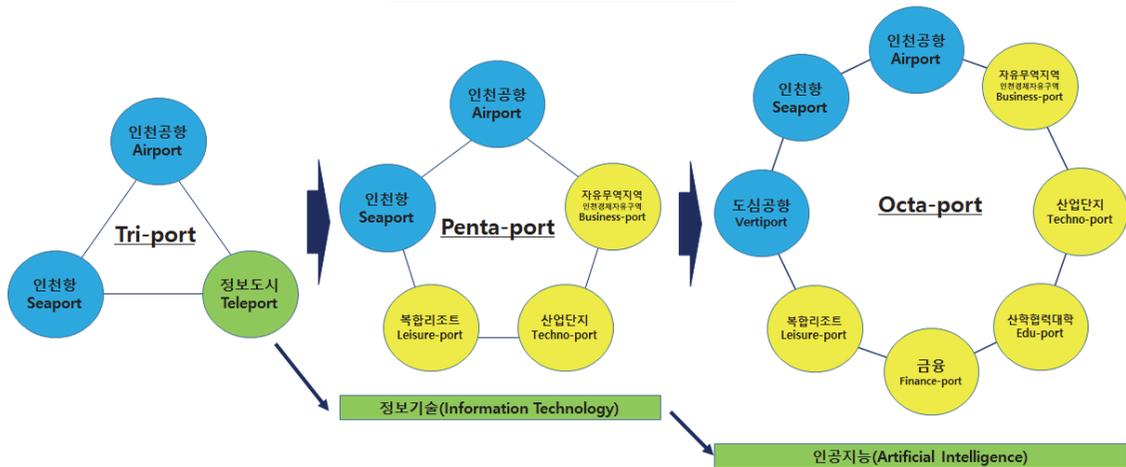
조업체와 서비스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있었다. 특히 인천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물류 인프라가 확보된 경쟁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신도시 건설이 가능한 송도, 청라, 영종 등의 지역을 물류 및 관광단지, 국제업무와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다국적기업의 지사, 지식기반산업의 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본사 및 테마파크와 스포츠산업 등 매우 포괄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하였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인천은 제2개항기로 부를 만큼 새로운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김청우, 2015; 박준철, 2017; 유병윤, 2019). 이때부터 인천은 '동북아의 물류도시', '동북아의 허브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국제적 도시로서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면서, 2003년 송도, 청라, 영종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2007년 2014아시아게임 개최지 확정, 2013년 GCF 유치, 그리고 2014인천아시아게임 개최 등을 발판으로 발전의 속도를 높여오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완착단계에 있으며,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녹색기후기금(GCF) 등 글로벌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하나금융타운 등 영종국제도시의 스테츠칩팩코리아(반도체), 보잉-대한항공 운항훈련센터 등이 유치되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첨단기업이 인천에 등지를 들었다(최정철, 2020).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특구정책으로 시작된 경제자유구역정책은 공항 및 항만이라는 물류 인프라에 신도시 건설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유치와 집적화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시는 공항과 항만, 정보통신이라는 트라이포트 정책을 추진하였다(박기찬·최정철, 1998). 이후 이를 5개 주요 항목으로 확장시킨 펜타포트 정책으로 승화·발전시켰으며 최근 들어 8개 주요 항목의 옥타포트 정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① IFEZ 지정 이전: 트라이포트 정책의 추진(1995~2002), ② IFEZ 지정 및 도약: IT기반 펜타포트 정책 추진(2002~2010), ③ IFEZ 첨단산업 유치: IT기반 펜타포트 정책 확산(2010~2014), ④ IFEZ 첨단산업 확산: IT기반 펜타포트 성숙 단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의 진화**



<그림 1> 트라이포트에서 옥타포트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의 진화, 연구자 작성

계(2014~2018), ⑤ IFEZ 첨단산업 특화: IT기반 펜타포트 집적화 단계(2018~2022)로 구분하여 IMF 국난극복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및 정책 추진 전략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옥타포트정책의 필요성과 IFEZ의 새로운 역할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특구정책을 통해 트라이포트정책, 펜타포트정책, 옥타포트정책을 펼쳐가는 단계별 경쟁력과 운영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SER-M 모델'(조동성, 1997; Park, 2015)을 적용하였다.

Andrews(1971) 이후 기업의 성공을 설명하는 전략경영 이론은 대체로 주체, 환경, 자원의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다(구자원·이윤철 2007). 주체, 환경, 자원에 대한 연구를 메커니즘 관점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동태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한 것이 SER-M 프레임워크(조동성·서울대 메커니즘연구회 2006)으로, 특히 기업의 경영성과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중요 요인이 메커니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구자원, 이윤철, 2007; 조동성, 서울대 메커니즘 연구회, 2006; 조동성, 정진섭, 2004; 조동성, 이윤철, 박기찬, 2001). 즉 메커니즘기반 관점으로 주체기반 관점, 환경기반 관점, 자원기반 관점 등 기존의 제반 관점을 통합한 SER-M 모델은 조직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체'(S)가 주어진 '환경'(E)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R)을 이용하는 독특한 '메커니즘'(M)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체(S)가 산업의 환경(E)을 파악하고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자원(R)을 창출하거나 활용함으로써 기업성장의 메커니즘이 형성되므로 특정한 요인에 의해 기업의 경쟁우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 환경, 자원 등의 각기 다른 요소와 관점들이 상호작용하며 기업의 메커니즘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고 보는 관점이다(조동성, 2006).

본 연구에서는 SER-M 모델을 통해 개발주체로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트라이포트, 펜타포트정책(Subject: S), 인천을 둘러싼 투자유치 환경(Environment: E), 도시개발의 핵심역량으로서 공항 및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Resource1: R1), 인적자원으로서 교육인프라 구축(Resource2: R2), 주요 산업의 유치활동 메커니즘(Mechanism: M) 등으로 구분하여 IFEZ 지정 배경 및 도약 과정, 첨단산업 유치·확산·특화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시장의 트라이포트, 펜타포트 전략의 수립과 실행, 전략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 미래지향적 시사점으로 IFEZ 옥타포트정책으로의 도전 및 도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IFEZ 지정 이전: 트라이포트 정책의 추진(1995~2002)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는 중앙정부 주도로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주거중심 위성도시 개발이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주도하여 해상 매립 신도시 형태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 정보화신도시로 도시개발 전략이 짜여졌다(김준우·안영진, 2006). 이에 따라 송도신도시 17.7km를 포함하여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반영과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1984년 8월 결정되었다. 2002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한 뒤, 3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발전기획단 구성,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발표,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로 경제특구로써 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하게 된다. 2003년 8월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인천의 송도·청라·영종 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였고, 10월13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및 규칙 공포를 거쳐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이 출범하였다.

### 2.1 최기선 시장의 트라이포트 정책 (S)

최기선 인천시장(1993년 관선, 1995.7~2002.6, 민선 7년)은 마지막 관선시장이자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인천을 트라이포트(Tri-port)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갔다. 트라이포트는 Airport · Seaport · Teleport의 합성어로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라는 물류 인프라에 정보통신(ICT) 산업이 결합된 국제도시를 지향하였다(박기찬 · 최정철, 1998).



〈그림 2〉 인천광역시 트라이포트정책, 연구자 작성

### 2.2 글로벌 투자유치 환경 (E)

- IMF 외환위기와 국난극복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인천광역시는 트라이포트(Tri-port)정책 하에서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모색하였다. 특히,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정

책에 글로벌, 물류, 정보화 사업을 접목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경제특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인천광역시는 송도지구 및 청라지구 도시개발 전략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조성 전략과 결합시켰다.

### 2.3 교통인프라의 복합적 구축 (R1)

인천광역시는 우선 공항(Airport) 정책으로 외환위기 속에서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2001년 3월29일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운항을 위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격납고 건설을 추진하였다. 또한 항만(Seaport) 정책으로 싱가포르항만청(PSA)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여 외항인 인천남항 컨테이너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인천북항에는 벌크전용항만 건설을 추진하였다. 한편, 철도(Railways) 정책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추진하여 1999년 성공적으로 개통하였으며, 대중교통에 의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향상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더하여 도로(Road) 정책으로 인천국제공항 접근용으로 영종대교를 2000년에 개통하였으며, 인천남쪽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인천대교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를 1999년에 성공시켜 IMF 외환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 2.4 교육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R2)

인천광역시는 트라이포트(Tri-port) 정책 및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천지역의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으로는 인적자원 인프라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천대학교의 시립화를 1994년 성사시켰으

며, 인하대학교에는 송도에 있는 대규모 부지를 제공하면서 트라이포트 정책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즉각 실현되지는 않았다.

2.5 주요 산업 유치활동 (M)

최기선 시장은 중앙부처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송도 정보화신도시 프로젝트 초기 계획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미국 게일(Gale)사의 투자결정을 이끌어 냈다. 최기선 시장은 인천광역시를 인천국제공항(Air-port), 인천항(Sea-port), 송도 정보화도시(Tele-port)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인천 트라이포트(Tri-port)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 이와 같은 트라이포트 전략은 오늘날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칭도 최기선 시장의 노력으로 세종공항 등의 명칭논란을 정리하고 인천도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투자유치의 실패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송도정보화신도시 프로젝트는 애초 계획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바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렸던 송도미디어밸리사업이다. 인천광역시가 중앙정부와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유치사업으로 1993년 경제5단체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에서 정보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삼보컴퓨터 이용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디어밸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통신, 삼보컴퓨터, 현대전자, LG전자 등의 출자로 (주)미디어밸리를 결성하고 1997년 인천광역시와 송도매립지에 첨단 IT단지를 조성하기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1997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송도신도시 1단계 사업은 21.7km<sup>2</sup>(656만평)로 개발면적이 확정되었는데, 사업대상 부지는 1999년 2월까지 매립하고 2001년까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완비하기로 하였다. 소프트웨어파크, 테크노파크, 미디어파

〈표 1〉 최기선 시장 트라이포트(Triport)정책(1995~2002)의 성과와 실패

펜타포트	Airport	Seaport	Teleport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진군 영종면·용유면, 김포군 계양면 인천직할시 편입 (1989)</li> <li>- 용진군, 김포군 검단면, 강화군 인천광역시 편입 (1995)</li> <li>- 인천국제공항 준비단계(1989~2014), 1단계 (1992~2001) 건설</li> <li>-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격납고 (2000~2002) 추진</li> <li>-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1격납고 (2000~2002)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남항 싱가포르 PSA ICT 부두 (2001~2004) 투자 유치</li> <li>- 인천 북항 (2002~2010)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테크노파크 유치 (1997)</li> <li>- 송도국제업무지구 게일사 유치 (2002)</li> <li>-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추진 (2000~2011)</li> <li>- 셀트리온 송도 국제도시 투자 유치 (2002)</li> </ul>
실패			- 송도 미디어밸리 추진 및 실패
철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1993~1999) 개통 인천국제공항철도 (2001~2010) 추진		
도로	영종대교 개통 (1995~2000) 인천대교 민자 유치 (1999)		
교육	인천대학교 시립화 (1994)		

크, 멀티미디어정보센터와 지원단지 등의 건설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부지제공과 기간시설 공사, 추진위는 자본유치를 전담하는 역할을 분담하였으나,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각 부처별로 유사한 개발 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관련법령 정비 또한 지연되면서 결국 인천광역시와 사업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2000년 사업종료를 결정했다(김홍전, 1999).

### 2.6 주요 성과(P)

최기선 시장의 트라이포트(Tri-port) 정책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대형선박의 24시간 접안이 가능한 인천외항의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경제특구정책을 입안한 것이며, 인천국제공항, 인천남항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귀결되었다. 트라이포트(Tri-port) 정책은 인천국제공항 1단계의 성공적 개장과 인천남항, 인천북항의 성공적 개장을 견인하였으며,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매립과 기반조성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인프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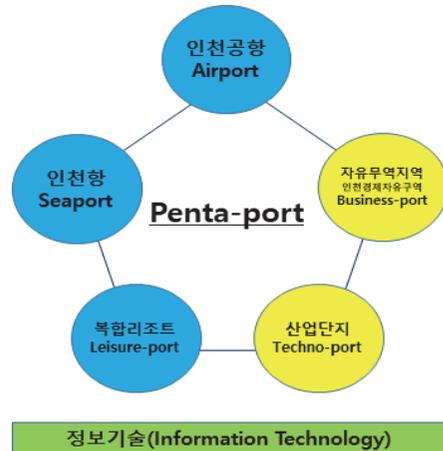
## III. IFEZ 지정 및 도약: IT기반 펜타포트 구축정책 추진(2002~2010)

### 3.1. 안상수시장의 펜타포트 구축정책 (S)

최기선 시장의 트라이포트(Tri-port)정책은 안상수 시장(2002.7~2010.6, 8년) 재임기간에 펜타포트(Penta-port)정책으로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펜타포트정책은 트라이포트정책의 Air-port정책과 Sea-port정책은 유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차원에서의 Business-port, 인천

국제공항,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단지와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묶은 Techno-port, 공항과 항만이라는 글로벌 교통수단의 발달과 병행하도록 복합리조트, 마리나, 크루즈 등과 인천국제공항과 강화도를 연계한 자연·역사 관광까지 고려한 야심찬 정책인 Leisure-port를 설정하였다. 트라이포트 정책 중 Tele-port는 주로 송도국제도시를 고려한 것이었으나, Business-port와 Techno-port를 설정하면서, Penta-port 전반에 필요한 인프라인 정보기술(IT)로 기능하도록 조정하였다.

IFEZ 제1대 이환균 청장(2003.10~2008.4, 전 건설교통부장관, 전 총리행정조정실장)과 제2대 이현석 청장(2008.4~2010.7, 전 한국재난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이 안상수 시장과 함께 펜타포트 정책 하에서 IFEZ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림 3〉 인천광역시 펜타포트전략, 연구자 작성

### 3.2 글로벌 투자유치 환경 (E)

OECD의 FDI 규제지수를 바탕으로 40개국을 분

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1997~2010년 사이 투자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개혁을 단행한 국가로 나타나 있다(Nicolas et al., 2013). 이는 우리나라가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겪으며 투자유치정책과 FTA 등 각종 무역자유화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화를 진행한 결과로써 이러한 개혁 덕분에 1990년대 중반부터 FDI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미래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경제특구정책이 실시되면서 2003년 국

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중동의 두바이,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 등의 경쟁 도시 보다 20여년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국제적인 경험과 능력 있는 민간 파트너와 민관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개발과 외자유치를 진행하였다. 즉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노력으로 세계적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3).

〈표 2〉 안상수 시장 IT기반 펜타포트 구축정책(2002~2010)의 성과와 실패

펜타포트	Airport	Seaport	Business port	Techno port	Leisure port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 공항 2단계 (2002~2008) 개통</li> <li>- 인천국제 공항 대한 항공 격납고 (2000~2002) 개장</li> <li>- 인천공항 아시아나 항공 제1 격납고 개장 (2000~20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남항 (2001~2008) 추진</li> <li>- 인천-북중국 정기 컨테이너 노선 개방 (2003)</li> <li>- 인천북항 (2002~2010) 추진</li> <li>- 인천신항 1단계 추진 (2009~2017)</li> <li>- 인천항만공사 출범 (20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경제자유 구역 지정(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국제도시</li> <li>• 청라국제도시</li> <li>• 영종국제도시</li> </ul> </li> <li>-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1단계 (2003~2006) 지정</li> <li>-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2007~2012)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지식정보 산단 추진 (2000~2011)</li> <li>- 검단지방산업 단지 추진 (2005~2014)</li> <li>- 영종 일반산단 (2007~) 추진</li> <li>- 남동국가산업 단지 구조고도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아시아안 게임 유치 (2007)</li> </ul>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내항 완전재개발 추진 및 철회 (2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국제도시 밀라노 디자인 시티(2009) 실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TP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2008~) 실패</li> <li>- 청라로봇랜드 (2007~) 실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세계 도시축제 (2009) 실패</li> </ul>
핵심기술	정보기술(IT)				
철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1단계 연장선 개통(2009) 인천국제공항철도(2001~2010) 추진				
도로	인천대교(2005~2009)와 제3경인고속화도로(2005~2010) 개통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김포구간(2007~2017) 추진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고속도로 추진				
교육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1단계(2006~2010) 완공 및 개교 인천대 송도캠퍼스(2003~2009) 개교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2010)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MOU 체결(2008) 송도국제도시 채드워송도국제학교(2006~2010) 추진 청라국제도시 청라달튼외국인학교(2009~2011) 추진				

### 3.3 교통인프라 구축 (R1)

안상수 시장 재임시기의 Airport 정책은 인천국제공항 2단계(2002~2008)를 적극 지원하여 2008년 성공적으로 개장하였다. Seaport 정책은 인천남항에 삼성-PSA, 선광, E1의 컨테이너전용부두를 개장하여 외항시대를 열었으며, 인천-북중국 항만간 컨테이너 항로의 개방을 실현하여 한-중간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한편, 선박대형화에 대응하여 송도국제도시 하단에 인천신항을 추진하였다.

철도정책으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국제도시와 연계시키기 위한 연장선을 2009년 개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추진하여 2010년 개통하였다. 도로정책으로는 최기선 시장이 유치한 인천대교를 2009년 10월에 개통하여 인천 남부권 및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연계성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김포구간(2007~2017)을 추진하였으며, 개성공단과 해주공단과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국제도시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고속도로를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직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

### 3.4 교육인프라 구축 (R2)

안상수 시장은 펜타포트(Penta-port) 정책으로 대표되는 IFEZ 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차원에서 연세대학교 국제화캠퍼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IFEZ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에는 채드워송도국제학교, 청라국제도시에는 청라달

튼외국인학교를 유치하였다.

### 3.5 주요 산업 유치 (M)

안상수 시장과 제1대 이환균 청장, 제2대 이현석 청장은 IFEZ의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에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여 많은 성과도 이루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실패로 끝난 사업도 많았다.

#### 3.5.1 송도국제도시

- 바이오기업 (주)셀트리온 유치

IFEZ 최초의 외국인 투자는 동물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글로벌 기준 부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인 (주)셀트리온 유치였다. 송도국제도시 190,706㎡의 부지에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연구시설 건립하는 사업으로 싱가포르 Temasek의 셀트리온헬스케어 포함 5억 5,700만 달러의 FDI가 유입되었다. 2002년 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2005년 7월 제1공장, 2011년 10월 제2공장이 각각 준공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세계 최대의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IFEZ는 2000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를 지정하여 2011년에 조성을 완료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기술혁신, 인력·R&D 및 첨단기술기업의 집적화, 산·학·연 결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연구, 생산,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Orix사(2008), 만도 Hella Electronics Corp.(2008), 미국 Cisco Systems사 u-City글로벌센터(2009), IBM Business Park(2009)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 우리나라 최초의 UN기구 유치

2005년 5월, UN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62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IT Training Center 최적지로 송도국제도시가 선정되면서 2006년 6월, UN 아·태정보통신기술 훈련센터(UN APCICT)가 개소되었다. APCICT는 국내에 설립된 최초의 UN 산하 국제기구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각 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62개 회원국의 ICT 관련 교육훈련, 정보교류, 정책자문 등으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었다.

- 송도컨벤시아 개장

MICE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송도컨벤시아가 2008년 10월 개장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1,500억원을 들여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2,956㎡ 규모로 지어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했다. 송도컨벤시아에는 450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시장과 관람객 2,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최대 23개실까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2018년에 2단계로 증축하였다.

- 인천세계도시축전 실패

인천광역시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여 인천의 발전상과 성장 잠재력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2014인천아시아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40억명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8). 그러나 세계도시엑스포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까지 겹치며 결국 실패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축전은 축제조직위원회 510명을 포함 3,000여명의 인원이 투입돼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총 80일간 1,398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됐으며 주행사

장에 328만명, 부대행사장 81만명, 연계 행사장에 190만명을 동원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축전을 전후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인천세계도시축전백서, 2010; 이연택, 공은숙, 2011).

### 3.5.2 청라국제도시

- GM대우 자동차성능시험장 및 연구실 유치

인천광역시시는 2004년 GM대우가 청라지구 410,000㎡의 부지를 자동차성능시험장과 연구실로 사용하도록 30년간 무상임대하였다. GM대우를 인수한 한국 GM은 1,000억원의 시설투자로 2007년 9월 주행시험장과 연구시설을 설치하였다. 시험주행장은 400여명의 핵심 연구원이 주행시험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연구동을 갖춰 청라지구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되었다.

### 3.5.3 영종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인천국제공항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1단계가 2003년 지정되어 2006년부터 물류기업을 유치하였으며, 2단계가 2007년 지정되어 2012년까지 조성되었다. 2007년 7월에는 DHL 공항물류센터 계약을 체결하여 항공물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한옥순, 2019).

- 밀라노디자인시티: 무산된 '밀라노의 꿈'

인천광역시시는 우리나라 첨단제품의 전시판매 및 개성공단과 해주공단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는 목표로 2008년 외자유치 등 3조 7,500억원을 투자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이탈리아 밀라노를 본뜬 전시·문화복합단지 밀라노디자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시행사인 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FIEX)가 830억원 규모의 사업부

〈표 3〉 IFEZ 외국인투자FDI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2003~2010, 단위: 백만 달러, 개)

연도	외국인투자FDI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비고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03	0	0	0	0	3	0	0	3	
2004	1	0	0	1	3	0	0	3	
2005	28	0	49	77	4	1	1	6	
2006	59	55	49	163	6	3	1	10	
2007	108	104	79	291	13	5	4	22	
2008	156	111	142	409	18	5	4	27	
2009	230	151	566	947	24	6	4	34	
2010	472	266	710	1,448	27	6	4	37	

〈표 4〉 IFEZ 인구 및 외국인(2003~2010, 단위: 명)

연도	인구				외국인				비율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03	2,274	23,054	0	25,328	189	226	0	415	1.6%
2004	2,215	28,519	0	30,734	163	404	0	567	1.8%
2005	17,729	30,720	0	48,449	285	609	0	894	1.8%
2006	21,114	31,344	0	52,458	810	683	0	1,493	2.8%
2007	23,621	29,987	0	53,608	734	686	0	1,420	2.6%
2008	27,395	28,887	0	56,282	842	559	0	1,401	2.5%
2009	33,293	30,170	0	63,463	667	637	0	1,304	2.1%
2010	41,425	34,687	4,463	80,575	809	768	58	1,635	2.0%

지 계약보증금을 내지 못해 2011년 계약이 해지되며 무산되었다. FIEX는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차질을 빚으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허주열, 2016).

### 3.6 주요 성과(P)

안상수 시장의 펜타포트(Penta-port) 정책은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2010년에 외국인투자 FDI 14.5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7개로 증가했다. 2010년 IFEZ역내 인구는 80,575 명으로 2003년 대비 3.2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1,635명으로 2003년 대비 3.9배 증가하였다.

## IV. IFEZ 첨단산업 유치: IT기반 펜타포트 정책 확산(2010~2014)

### 4.1 송영길 시장의 펜타포트 실현정책 (S)

송영길 시장(2010.7.~2014.6., 4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인천광역시 및 산하 인천 도시공사의 과다부채 해결을 주요 시정과제로 제시

하였다. 시정목표로 '경제수도 인천'을 내세우며 펜타포트전략을 실현하면서 대규모 고용효과가 있는 첨단산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면서 세수를 늘리고,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

고, 일부 자산은 매각하여 부채를 줄여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채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펼쳤다(노재인 외, 2018). 이에 따라 IFEZ는 2010~2014년 동안 구축한 질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표 5〉 송영길 시장 IT기반 펜타포트 실현정책(2010~2014)의 성과와 실패

펜타포트	Airport	Seaport	Business port	Techno port	Leisure port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 공항 3단계 (2009~2017) 추진</li> <li>- 인천국제 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격납고 (2011~2013) 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신항 1-1단계 건설 (2009~2017)</li> <li>-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 (2012~2020)</li> <li>- 인천남항 아암물류 2단지 개발</li> <li>- 인천신항 배후 물류 단지 개발</li> <li>-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내항 재개발 반영 (20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자유 무역지역2단계 확장 (2007~2012)</li> <li>-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스텝칩팩코리아 유치 (2012)</li> <li>-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2011), GCF (2012),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2013), 대우인터내셔널 (2013), 코오롱 글로벌 (2013) 유치</li> <li>-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타운 유치 (20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항공일반 산단 (2007~) 추진 및 프랫앤휘트니 엔진 테스트셀 (2011) 유치</li> <li>- 송도지식정보 산단 추진 (2000~2011)</li> <li>-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IHP) 지정(2011)</li> <li>- 서부지방산업 단지 LG전자 인천 캠퍼스 유치 (2011)</li> <li>- 검단지방산업 단지 추진 (2005~2014)</li> <li>- 남동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추진</li> <li>- 인천지방산단 구조고도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아시아안 게임 스포츠 시설 건설 (2010~2014)</li> <li>- 왕산마리나 건설 (2011~2017)</li> <li>- 영종한상드림 아일랜드 추진 (2012~2022)</li> <li>-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건립 추진</li> </ul>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도 랜드마크 시티 사업실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유무의관광 단지실패(2013)</li> </ul>
핵심기술	정보기술(IT)				
철도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서울역구간(2001~2010) 개통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개통(2014) 인천도시철도 2호선(2009~2016) 추진				
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김포구간(2007~2017) 추진 제3연육교 추진,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 추진				
교육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A단계 완공(2013)과 1-2B단계 완공(2014)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화 출범(2013)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5·7공구 토지매매계약 체결(2010, 2011)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11공구로 변경계약 체결(2013) 인천글로벌캠퍼스(2007~2015) : 한국뉴욕주립대 개교(2012), 조지메이슨대 개교(2013), 유타대(2014), 켄트대(2014) 송도국제도시 채드워송도국제학교(2006~2010) 개교 청라국제도시 청라달튼외국인학교(2009~2011) 개교				

대거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IFEZ 제3대 이종철 청장(2010.7.~2015.6)은 송영길 시장과 함께 펜타포트 실현정책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 4.2 글로벌 투자유치환경 (E)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 때 1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IFEZ에는 2010년 기준 인천 전체 미분양 아파트 중 70%가 넘는 3,100채나 되었으며, 주요 개발 프로젝트는 담보상태에 빠졌다. 대표적으로 IFEZ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되던 151층 인천타워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인천광역시의 재정악화로 18조 8,7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건립이 취소되었다. 랜드마크 시티 사업은 이 시기 재협상에 들어가 일부 부지가 매각돼 개별 아파트단지화로 되는 등 큰 틀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2014인천아시아안게임의 준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 4.3 교통인프라 구축 (R1)

인천광역시는 Airport정책은 인천국제공항 3단계(2009~2017)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제2 격납고(2011~2013) 개장을 지원하였다. Seaport 정책은 인천신항 1-1 단계(2009~2017),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및 인천남항 아암물류2단지 개발을 본격화되도록 지원하였다. 철도정책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서울역구간 개통에 이어 청라국제도시역이 개통되었으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본격 추진되었다. 도로정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민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4.4 교육인프라 구축 (R2)

송도국제도시 7공구 295,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5,040억원을 들여 2011년 준공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단계는 강의연구동과 기숙사, 교수아파트, 대강당, 도서관,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5,0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1단계 사업으로 한국뉴욕주립대(2012. 3. 개교), 조지메이슨대(2013. 9. 개교), 유타대(2014. 3. 개교), 겐트대(2014. 3. 개교) 등이 입주하였다. 글로벌캠퍼스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주재원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국내에서도 해외유학에 버금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4.5 첨단산업 유치 (M)

송영길 시장과 3대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IFEZ의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에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전기자동차및 테리산업, 항공정비산업, 종합무역업, 금융업 등 첨단산업을 신규로 유치하는데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용유무의관광단지사업은 실패하였다.

##### 4.5.1 송도국제도시

- 바이오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1년 4월 삼성전자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1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완료하는 윈스톱 서비스의 모범사례를 보여 주었다.

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바이오제약 사업의 시작으로 삼성은 신설된 합작사를 통한 CMO 사업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고 2016년 바이

오시밀러 생산에 돌입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송도국제도시 입성은 국제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급부상하는 기반이 조성됐으며, 바이오분야 산·학·연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업 환경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이 외국과의 합작형태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최초의 사례로 국내 대기업의 IFEZ내 투자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3).

- 반도체기업 앰코테크놀로지 유치

미국 앰코테크놀로지는 2013년 6월 186,000㎡ 부지에 송도 R&D센터 및 생산시설 기공식, 2014년 말 완공, 그리고 201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1단계로 2019년까지 R&D센터 및 공장신축, 시설·장비투자에 1조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19년 이후 매년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송도사업장을 앰코사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 는 40억 달러의 수출증대와 5,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반도체 선진 기술 발전 및 우수 인재 확보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3년 당시 앰코테크놀로지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1968년 설립 이래 세계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를 선도하고 있었으며 미국 본사를 거점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 등지에 영업 네트워크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5개국 11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3).

- 종합무역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유치

대우인터내셔널은 2013년 당시 매출 17.5조원, 자산규모 7.5조원의 대형 글로벌기업으로 수출입, 해외산업플랜트를 포함한 무역부문과 자원개발부문, 국내외 제조 및 유통부문의 3개 부문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송도국제도시 입주로 생산

유발효과가 약 1.8조원으로 기대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송도 NEATT타워(현 포스코타워)에 2015년 1월에 입주하여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유엔 녹색기후기금 24개 이사국 대표들은 2012. 10.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과 독일을 비롯한 6개 유치 희망 국가(도시)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를 GCF 사무국 유치 도시로 선정하였다. GCF는 2010년 12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키로 합의한 국제금융기구다. 당시 사무국은 2013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오는 2020년까지 총 8,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이 펀드의 규모는 8,450억 달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맞먹는 규모이다. GCF 사무국에는 8,000여명 이상이 상주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1년에 3,8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을 탈퇴하고 펀딩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펀딩이 추진되지 않았다.

#### 4.5.2 청라국제도시

- 하나금융그룹 유치

하나금융그룹은 2013년 4월 그룹의 헤드쿼터, 금융R&D센터, 금융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IT센터 및 그룹 콜 센터 등 핵심 전략 기반시설들이 통합 설치하는 하나금융타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밖에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그룹 임직원 가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고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열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2013년 하반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7

년 6월에 1,800명이 1단계의 성과로 이전하였다.

4.5.3 영종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반도체기업 스태츠칩팩코리아 유치

2005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2006년 1월 992,000㎡의 규모로 1단계, 2012년 2월 553,000㎡ 규모로 2단계 지역이 운영을 개시하였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13년 자유무역지역 2단계 물류단지에 연면적 110,000㎡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 글로벌 R&D센터 및 기술사 등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의 스태츠칩팩이 100% 투자해 옛 현대전자의 반도체 사업본부를 인수한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연매출 7,000억원, 종업원 2,500여명에 이르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반도체 생산 후공정) 전문기업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 매출의 75% 이상이 해외수출로, 수출물량 전

량이 항공물류로, 그리고 제조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매년 3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1만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발생이 기대되었다(박홍서, 2013).

- 용유무의관광단지사업 에잇시티 :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의 좌초

에잇시티 사업은 인천광역시 2007년 독일계 호텔리조트그룹인 캠펠스키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용유도와 무의도의 육지와 해상 80km에 호텔, 쇼펩몰, 한류스타랜드, 복합리조트 등 문화관광레저를 기반으로 한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실상 신도시급 개발 계획이었다. 사업비만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317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SPC) ㈜에잇시티 설립 지연과 증자약속 무산, 보상비 마련 실패에 따른 주민 반발 등 파행을 거듭하다 2013년 좌초됐다. 인천광역시는 협약기간을 13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추진에 의욕을 보였지만 SPC가 4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표 6〉 IFEZ 외국인투자FDI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2011~2014, 단위: 백만 달러, 개)

연도	외국인투자FDI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비고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0	472	266	710	1,448	27	6	4	37	
2011	832	459	710	2,001	36	8	4	48	
2012	1,048	2,353	710	4,111	40	9	4	53	
2013	1,834	2,510	710	5,054	52	12	5	69	
2014	3,358	2,690	720	6,768	57	12	6	75	

〈표 7〉 IFEZ 인구 및 외국인(2011~2014, 단위: 명)

연도	인구				외국인				비율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0	41,425	34,687	4,463	80,575	809	768	58	1,635	2.0%
2011	55,178	37,235	25,775	118,188	905	850	151	1,906	1.6%
2012	61,608	41,170	55,451	158,229	915	640	175	1,730	1.1%
2013	71,792	52,145	70,388	194,325	1,159	759	375	2,293	1.2%
2014	86,002	58,025	78,200	222,227	1,812	1,090	708	3,610	1.6%

결국 무산되었다(허주열, 2016).

#### 4.6 주요 성과 (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IFEZ의 투자유치는 2010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매년 급상승 하였다. IFEZ는 2010~2014년에 잘 갖춰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대거 유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변모를 갖추었다. 2014년에 외국인투자유치는 67.7억 달러로 2010년 대비 4.7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75개로 2010년 대비 2.0배가 증가하였다. 2014년 인구는 222,227명으로 2010년 대비 2.8배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3,610명으로 2010년 대비 2.2배 증가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자문위원회와 민관합동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과 투자유치 자문,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등 각종 특수시책 추진에 힘입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투자기업들의 IFEZ 입주가 잇따르고 FDI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둬 IFEZ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IFEZ에 국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지만 규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V. IFEZ 첨단산업 확산: IT기반 펜타포트 성숙 단계(2014~2018)

#### 5.1 유정복 시장의 펜타포트 성숙 정책 (S)

유정복 시장(2014.7~2018.6, 4년)은 보수진영 시장으로서 진보진영 송영길 시장의 펜타포트 실현

정책을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유치 성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으나 정책변경의 한계로 인하여, 펜타포트 성숙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에 유치된 첨단산업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였다. IFEZ의 첨단산업 유치, 물류 인프라, 정주여건 강화가 속속 갖춰지면서 성과가 가시화되었으나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2018년 2월 '인천경제청 개청 15주년, 5대 목표와 과제'를 통해 서부산단 930,000㎡를 포함한 인천서북부지역 1,159,000여㎡, 강화도 남단 동막해변 일대, 수도권매립지 5.4km<sup>2</sup>를 추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한국경제, 2018),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시장으로 교체된 이후 무산되었다.

IFEZ 제4대 이영근 청장(2015.8~2017.7)과 제5대 김진용 청장(2017.9~2019.5) 역시 IFEZ에 유치된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5.2. 글로벌 투자유치환경 (E)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산업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2013년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도 신속히 추진되었다. 하지만 2016년 중반이후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2017년초 탄핵으로 귀결됨으로써 유정복 시장 역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시정추진력을 발휘하다가 후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시정추진에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 5.3 교통인프라 구축 (R1)

인천광역시는 Airport정책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하에 인천국제공항 3단계가 2013년 9월에 착공되어 2018년 1월에 개장됨으로써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혼잡도가 대폭 완

화되었다. 2016년에는 항공안전차원에서 인천국제 공항에 샤프에이비에션K에 의한 저가항공사용 격납고도 개장하였다. Seaport정책으로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전용부두 800m가 2017년에 완전 개장하였으며,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이 건설되었다. 철도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건설이 지연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6년에 개통하였으며, 수인선 인천역-오이도역 구간이 2016년에 우선 개통

되었다. 유정복 시장은 공약인 수인선 KTX를 추진 하였으나, 2020년 수인선 완전 개통 이후인 2020년 12월에 착공되어 2024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정책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김포구간을 2007년 실시협약 체결이후 10년만인 2017년에 개통하였으며, 제3연륙교,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을 추진하였으나, 재임기간 중에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표 8〉 유정복 시장 IT기반 펜타포트 성숙정책(2014~2018)의 성과와 실패

펜타포트	Airport	Seaport	Business port	Techno port	Leisure port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 공항 3단계 (2009~2017) 개통</li> <li>- 인천국제 공항 저가 항공사 격납고 (2015~2016) 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신항 1-1단계 (2009~2017) 개장</li> <li>- 인천남항 국제여객 부두 및 터미널 (2012~2020)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바이오 에피스R&amp;D센터 투자협약 (2014)</li> <li>- 삼성바이오 로직스 2공장 (2013~2016), 3공장 (2015~2019)</li> <li>- 엠코 테크놀로지 (2013~2017)</li> <li>- 하나금융타운 1단계 (2015~20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항공일반 산단추진 (2007~)</li> <li>- 송도테크노파크내 인천산학 융합지구 추진 (2016~2020)</li> <li>- 서부지방산단 LG전자 인천 캠퍼스 증설 추진 (20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산마리나 (2011~2017) 개장</li> <li>- 파라다이스시티 복합리조트 1단계 (2014~2018)</li> <li>- 인천남항 크루즈터미널 건설 (2017~2020)</li> <li>- 영종한상드림 아일랜드 (2012~2022) 추진</li> </ul>
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경제자유구역 서부산업단지, 수도권 매립지, 강화도남단 확장 실패(2018)</li> </ul>		
핵심기술	정보기술(IT)				
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2009~2016) 개통 수인선 인천역-오이도역(2004~2016) 개통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2014), 영종역(2016), 공항2터미널역(2018) 개통 수인선 KTX 추진 청라 GRT 개통				
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김포구간(2007~2017) 개통 제3연륙교 추진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추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 추진				
교육	송도국제도시 인하대 항공우주캠퍼스(2016~2020) 추진 송도 포스코 자율형 사립고 개교(2015) 인천글로벌캠퍼스(2007~2015) :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겐트대 개교(2014),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 개교(2017)				

#### 5.4 교육인프라 구축 (R2)

2007년부터 추진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2015년 12월에 1단계가 준공되어, 2014년에는 유타대와 겐트대가 개교하였으며, 2016년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응용수학통계학(학부, 석·박사), 경영학(학부) 학과가 증설되었으며, 2017년에는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FIT)이 개교하였다. 한편, 2016년에 송도국제도시 송도테크노파크의 인하대학교 부지에 인천산학융합지구사업을 추진하여 인하대 항공우주캠퍼스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대학과 산·학·연·관 연계로 IFEZ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모델이 실천되었으며, 이후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등이 사이언스파크를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한갑수, 2020).

#### 5.5 첨단산업 육성활동 (M)

유정복 시장과 4, 5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송영길 시장과 2, 3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에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전기자동차배터리산업, 항공정비산업, 종합무역업, 금융업, 복합리조트 등 유치한 첨단기업의 신증설 인허가에 주력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였지만, 신규 첨단산업 유치는 미미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장에는 실패하였다.

##### 5.5.1 송도국제도시

-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능력 확대

셀트리온은 2005년 7월에 1공장 준공(5만ℓ), 2011년 10월에 2공장 준공(9만ℓ)으로 연간 생산능력 14만ℓ를 확보하고 2016년 4월 램시마 미국(FDA) 판매허가 획득, 2016년 11월 트룩시마 한국(MFDS) 판매허가 획득, 2017년 2월 트룩시마 유

럽(EMA) 판매허가 획득, 2018년 2월 허쥬마 유럽(EMA) 판매허가 획득 등 비약적 도약을 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2월 인천광역시와 송도부지 입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1공장(3만ℓ)은 2011년 5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에 준공하고 2013년 7월에 가동에 들어갔다. 2공장(15.4만ℓ)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2월 준공, 2016년 3월 가동에 들어갔다. 3공장(18만ℓ)은 2015년 12월에 착공하고 2017년 11월 준공, 2019년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연간 생산능력 36.4만ℓ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스위스의 룬자(26만ℓ)나 독일의 베링거인겔하임(24만ℓ)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이다.

- 엠코테크놀로지 등 반도체산업 확대

2016년 8월말 기준 미국 엠코테크놀로지, 싱가포르 스태츠칩팩을 인수한 중국JCET 스태츠칩팩의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 2개사, 반도체 재료 관련 일본 TOK, 반도체 장비 관련 미국 에이원머신 등 총 4개의 반도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총 457,108㎡의 부지에 4조 175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 중 미화 6억 5,000만 달러의 외자 도입과 함께 총 1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다.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 3위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와 JCET스태츠칩팩이 나란히 IFEZ에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이홍석, 2019). 엠코테크놀로지는 송도국제도시 56,000평 부지에 K5 송도사업장을 2013년 6월에 착공하고 2017년 5월에 준공하여 1,500여명이 입주하였다.

- 송도컨벤시아 2단계 개장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2015년 12월에 착공한지 2년 7개월만인 2018년 7월 총사업비 1,536억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건립됐다. 송도컨벤시아 1단계 기

존 부지 내에도 전시 및 회의시설, 판매시설 등 연면적 64,207㎡를 증축, 2단계를 포함하여 117,163㎡으로 확장하고 900부스 이상의 전시가 가능한 전시장, 2,000명 이상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회의장과 중소 회의실을 갖추었다.

### 5.5.2 청라국제도시

- 하나금융타운 조성

하나금융그룹은 2014년부터 청라국제도시에 246,671㎡(7만 4,000여평) 규모로 ‘하나금융 드림타운’(하나금융타운)을 조성하였다. 하나금융타운 1단계사업은 통합데이터센터를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해 IT(정보기술) 인력 1,800여명이 입주하였다.

- 로봇랜드의 좌절 및 극복 추진

로봇랜드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770,000㎡에 로봇연구소, 대학원, 로봇산업지원센터 등의 로봇산업진흥시설 건설과 운영, 로봇테마파크 시설 건설과 운영, 부대시설 개발 및 분양을 목표로 2007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중앙정부 로봇랜드 최종 사업자 선정 이후 2009년 인천테크노파크(지분율 49.99%)와 인천도시공사(지분율 3.12%), (주)한양(지분율 19.04%), (주)두손건설(지분율 10.75%), (주)엘지씨엔에스(지분율 3.41%)가 160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인천로봇랜드를 설립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안으로 국비와 시비 595억원 등 1,190억 원이 투입되어 2014년 9월 착공한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로봇산업지원센터가 2017년 7월 문을 열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곽안나, 2017).

### 5.5.3 영종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주로 by-passing으로 운영되는 화물터미널지역(1,101,000㎡)과 2006년 1월 개장된 이래 2018년 상반기까지 총 37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공항물류단지(1단계 992,000㎡, 2단계 553,000㎡)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2007년 설립된 국제특송기업 DHL 인천허브는 독일 도이치 포스트 그룹(Deutsche Post Beteiligungen Holding GmbH)이 주식 100%를 보유한 투자회사로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1단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 북측 화물터미널 부지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19,946㎡ 규모의 DHL 전용 화물터미널을 BOT 방식으로 개발해 운영 중인데 2022년까지 1,750억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내 DHL 전용 화물터미널을 기존 대비 3배 가량인 58,713㎡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19).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스태츠칩팩코리아 공장 증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지에 입주한 외국계 기업은 스태츠칩팩코리아(제조, 중국), 쉐커(물류, 독일), KWE(물류, 일본), 자스포워딩(물류, 미국), 썸머 피셔과학(도매, 미국), 세계적인 물류시설개발자인 AMB 등 8개다(한옥순, 2019). 중국 JCET가 싱가포르 스태츠칩팩을 2015년 1월에 인수한 JCET스태츠칩팩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에 인수 이전에 110,117㎡ 규모의 1공장을 2013년 9월에 착공하고 2014년 5월에 준공하여 2,300여명이 입주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화물터미널은 모두 6개 동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2019년 기준 연간 372만 톤의 항공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였으며, 인수이후에 120,000㎡ 규모의 2공장 증설을 2015년 7월에 착공하고 2016년 11월에 준공하여 800여명이 추가 입주하였다.

- 프랫앤휘트니 항공엔진테스트시설과 보잉운항 훈련센터 가동

중구 운북동 일원 494,849㎡의 운북첨단항공산업단지 부지에 항공MRO산업, 항공운항훈련센터 등이 들어섰다. 대한항공과 세계적 엔진제작사 미국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의 합작법인인 아이에

이티(Incheon Aviation Tech)는 69,209㎡의 부지에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공기 엔진 분해·조립·부품수리 및 성능 시험 등 항공엔진테스트시설(ETC, Engine Test Cell)을 2014년 5월 착공, 2015년 5월 준공하여 2016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와 함께 32,614.5㎡의 부지에 1,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운항훈련센터를 2013년 11월 착공, 2016년 4월 준공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가동하였다. 이는 조종사 훈련용 Simulator

〈표 9〉 IFEZ 외국인투자FDI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2015~2018, 단위: 백만 달러, 개)

연도	외국인투자 FDI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비고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4	3,358	2,690	720	6,768	57	12	6	75	
2015	3,936	3,317	721	7,974	57	12	6	75	
2016	5,125	3,687	731	9,543	58	12	6	76	
2017	5,464	4,307	763	10,534	62	12	6	80	
2018	6,363	4,739	767	11,869	67	13	6	86	

〈표 10〉 IFEZ내 사업체수(2015~2018, 단위: 개)

연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5	1,261	585	315	2,161
2016	1,246	697	410	2,353
2017	1,520	734	441	2,695
2018	1,658	887	494	3,039

〈표 11〉 IFEZ내 인구 및 외국인(2015~2018, 단위: 명)

연도	인구				외국인				비율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4	86,002	58,025	78,200	222,227	1,812	1,090	708	3,610	1.6%
2015	99,424	62,136	82,051	243,611	2,271	1,176	768	4,215	1.7%
2016	112,814	64,598	86,011	263,423	2,502	1,317	764	4,583	1.7%
2017	123,832	68,406	89,247	281,485	2,826	1,178	790	4,794	1.7%
2018	139,580	74,704	97,744	312,028	3,276	1,335	885	5,496	1.8%

도입 및 Pilot Training Service 운영을 통해 1일 평균 최대 항공기 조종사 400여명이 이용가능하며, 연 3,500여명의 운항승무원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규모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3).<sup>2)</sup>

●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

한·일 합작법인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인천 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1단계 330,000㎡ 부지에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총 1조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다. 1단계 1차 시설은 2014년 11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200,000㎡ 규모에 지하 2층, 지상10층 규모로 6성급 호텔(711실), 다양한 국제회의 및 연회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최대 1,600명 수용), 440대의 최신식 게임기구를 구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갖추어 2017년 4월에 개장하였다. 1단계 2차 시설은 2016년 5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110,000㎡ 규모에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다이스(58실)’, 링 아트 스카 ‘씨메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 ‘크로마’, 쇼펩 아케이드 ‘플라자’, 예술전시공간 ‘아트 스페이스’, 융복합 스튜디오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가족형 실내 테마파크 ‘윈더박스’ 등을 갖추어 2018년 9월에 개장하였다.<sup>3)</sup>

5.6 주요 성과 (P)

최기선 시장부터 유정복 시장까지 오랜 인프라 구축시기를 거쳐 IFEZ의 첨단산업 유치가 안착되었다. 즉 IFEZ를 스마트시티(Smart City)로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고 5대 공공서비스 지원과 송도, 청라, 영종지구가 통합운영에 들어갔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세계 최고·최대의 바이오·헬스 단지가 조성되었고, IT, BT, 메디컬 융복합,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핵심소재 부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업을 중점 유치하였다. 청라국제도시에는 로봇·드론·신에너지 기업을 집적화하고, 글로벌 금융도시로 발전을 도모하였다. 영종국제도시에는 항공정비(MRO)특화단지 및 일반항공산업단지 지정과 항공정비, 운항훈련센터, 항공부품 등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였다. 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는 118.69억 달러로 2014년 대비 75.3%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86개로 2014년 대비 14.7%가 증가하였다. 2018년에 IFEZ 역내 사업체수는 3,039개로 2015년 대비 40.6% 증가하였다. 2014년에 인구는 312,028명으로 2014년 대비 40.4%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5,496명으로 2014년 대비 52.2% 증가하였다.

VI. IFEZ 첨단산업 특화: IT기반 펜타포트 집적화 단계 (2018~2022)

6.1 박남춘 시장의 펜타포트 집적화 정책 (S)

박남춘 시장(2018.7~현재)은 진보진영 시장으로서 IFEZ와 원도심의 균형성장과 남북관계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역대 시장을 거치면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영종-신도-강화도 연륙교 중에서 영종-신도 구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 등을 2020년 하반기에 해결하였다. IFEZ의 경쟁력

2) 보잉코리아 LLC가 토지매입하고 대한항공이 센터건립 이후 양사가 훈련센터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차세대 조종사를 육성하고 있다.  
3) 2단계는 연면적 185,015㎡ 규모에 5,000억원을 투자하여 공연장, 비즈니스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갖추는 것으로 2017년 10월에 승인을 받고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개장하기로 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강화를 위하여 송도국제도시와 광화문을 연계하는 GTX-B노선은 2019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과 강남을 연결하는 GTX-D노선도 추진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의 IFEZ 발전정책은 보수진영 유정복 시

장의 펜타포트 성숙정책을 유지하면서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산업과 항공산업, 영종국제도시에는 공항 경제권과 항공MRO산업의 집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IFEZ 제6대 이원재 청장(2019.7~현재)도 펜타포트에 첨단산업 집적화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표 12〉 박남춘 시장 IT기반 펜타포트 첨단산업 집적화 정책(2018~2022)의 성과 및 목표

펜타포트	Airport	Seaport	Business port	Techno port	Leisure port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4단계 (2018~2024) 건설</li> <li>- 공항 경제권 계획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남항 국제여객 부두 및 터미널 (2012~2020) 개장</li> <li>- 인천신항1-2단계 건설 (2019~20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3단계 (2020~2021) 확장</li> <li>- 인천 스타트업 파크 조성(2020)</li> <li>-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2020~2022)</li> <li>- 하나금융타운 2단계 (2017~2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항공일반 산단추진 (2007~ )</li> <li>- 인천산학융합 지구 (2016~2020) 개장</li> <li>- 인천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지정 (2020)</li> <li>- 남동산단스마트 제조혁신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남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 (2017~2020)</li> </ul>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제2 항공 MRO단지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내항 1,8부두 개방</li> <li>- 연안부두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남항아암 물류 2단지 (2006~2025) 건설</li> <li>- 인천신항배후 물류단지 1단계 (2015~2025)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라다이스 시티 2단계 (2022~2024)</li> <li>-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1-A 단계 (2019~2022)</li> <li>- 인천남항 골든하버</li> </ul>
핵심기술	정보기술(IT)				
철도	수인분당선 인천-수원구간(2004~2020.9.) 완전 개통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2단계 연장선 개통(2020.1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2020~2024) 추진(2020.11. 착공)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선 추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남항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추진 제2경인선 추진 / GTX-B노선 추진 / GTX-D노선 추진 부평~연안부두 트램 추진 / 제2인천국제공항철도 추진				
도로	제3연륙교 추진(2020.12. 착공)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추진(영종-신도 연도교, 2020.1. 착공)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 추진				
교육	송도국제도시 인하대 항공우주캠퍼스(2016~2020) 개교 연세대학교 송도사이언스파크 추진 인하대학교 송도사이언스파크 추진 인천대학교 송도사이언스파크 추진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2020~2026) 추진				

## 6.2 글로벌 투자유치환경 (E)

1997년과 2008년의 대한민국을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IFEZ 역시 엄청난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유정복 시장 체제에서는 인천광역시의 부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영길 시장 시절에 유치한 기업의 안정적 정착에 주력하여 상대적으로 신규 기업유치는 소강 상태였다.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이러한 상황을 재정비하고 재도약을 도모하던 중 미증유의 COVID-19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IFEZ는 202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7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투자유치 전략으로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물류 등 3개 산업분야의 유치를 내세워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자본·기술 위주의 투자 유치, 규제 완화 테스트 베드를 활용한 투자유치 환경개선,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 연계한 네트워킹 역량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 6.3 교통인프라 구축 (R1)

박남춘 시장의 Airport 정책으로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추진, 인천국제공항 2단계 항공MRO 단지를 4단계 건설과 병행 추진, 그리고 공항경제권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eaport 정책으로는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크루즈부두를 2020년 6월에 개장하여 북중국 10개 항로를 통합 이전함으로써 연안부두 재정비와 인천내항 1.8부두 개방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천신항 1-2단계 건설도 2020년에 추진하고 있다. 철도정책은 2020년 9월 수인선 완전 개통, 2020년 12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2단계 연장선 개통,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2020년 11월에 착공식을 가졌다. 또한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선과 광명역

연장선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과제로는 제2경인선, GTX-B노선, GTX-D노선, 제2인천국제공항철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정책은 제3연륙교,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을 추진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2020년 12월 착공했으며,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영종-신도구간은 2021년 1월 착공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2024년에 개통되므로 인천남항-안산구간의 개통시기를 앞당기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6.4 교육인프라 구축 (R2)

교육인프라는 2020년 9월 송도국제도시 송도테크노파크내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캠퍼스가 개교하였으며,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하대 송도캠퍼스, 인천대학교 R&D부지에 사이언스파크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IFEZ 출범 17년이 경과하면서 첨단산업 허브로 전환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가 추진되고 있다.

## 6.5 첨단산업 집적화 활동 (M)

박남춘 시장과 제6대 이원재 청장은 유정복 시장과 4, 5대 IFEZ 청장에 이어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에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전기자동차배터리산업, 항공정비산업, 종합무역업, 금융업, 복합리조트 등 유치한 첨단기업의 대규모 증설 및 집적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인공지능 기반구축, 산학협력대학기반의 사이언스파크 구축, PAV 제조, UAM과 Vertiport 구축,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및 녹색기후기금 등에 의한 IFEZ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6.5.1 송도국제도시

• 바이오클러스터 집적화

2020년 기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13개로, 대표적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고, 안센백신, 스마트바이오팜, 펄자임 등의 중소기업 11개가 입주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70여개 기업의 바이오 생산능력은 약 56만ℓ로, 샌프란시스코(44만ℓ), 싱가포르(27만ℓ)를 넘어선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 수출의 약 58%, 투자의 약 30%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창출되고 있다.<sup>4)</sup>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sup>5)</sup>

• 항공산업클러스터 집적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천지역 140여개 관련기업이 참여한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을 위하여 인천산학융합원을 2017년 4월에 설립하였다. 2019년 1월에는 항공우주캠퍼스(10,357㎡)와 기업연구관(9,551㎡)을 착공하여 2020년 6월에 준공하였다. 항공우주캠퍼스에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과, 제조혁신전문대학원 등이 2020년

8월에 인하대 용현동캠퍼스로부터 이전하였으며 기업연구관은 항공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집적화를 담당하고 있다.

• 기계금속산업 집적화

최근 세계 3대 첨단 금속가공시스템 제조기업인 스위스의 바이스트로닉(Bystronic)이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전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하였고, 독일의 강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제품에 활용,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이구스(igus)가 송도에 첨단 부품생산 및 R&D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 IT산업 집적화

송도국제도시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IT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변지역의 IT산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11공구 바이오클러스터를 제외하고 제조업 부지가 넓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IT분야에서는 제조보다는 연구소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전자기기, 특히 IT산업인데 IT 산업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COVID-19 이후 세계 경제가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됨에 따라 IT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쇼핑,

4)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4, 5공구와 새롭게 조성될 11공구를 연계한 의료·바이오·헬스케어의 중심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입주기업(60개→700개), 고용규모(5,000명→20,000명), 누적투자(7조원→15조원), 연매출액(2조원→10조원) 부분에서 송도를 K-바이옌 선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2030 목표와 비전을 수립했다.

5) 셀트리온은 기존 연간 생산능력 14만ℓ에 2019년 5월에 1공장 증설(5만ℓ)로 연간 생산능력 19만ℓ를 확보하고, 2018년 11월에 테믹시스 미국(FDA) 판매허가 획득, 트룩시마 미국(FDA) 판매허가 획득, 2018년 12월에 허쭈마 미국(FDA) 판매허가 획득, 2019년 4월에 리네졸리드 미국(FDA) 판매허가 획득, 2019년 11월에 램시마SC 유럽(EMA) 판매허가 획득, 2020년 2월에 램시마SC 한국(MFDS) 판매허가 획득 등을 기반으로 2020년 2월에 연매출 1조원을 달성하였다. 2016년 5월부터 3공장(12만ℓ)을 신설하여 총 생산능력 31만ℓ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지연되었고, 2020년 8월에 20만ℓ의 3공장을 2023년에 착공하여 총 생산능력 39만ℓ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3개 공장 24만㎡ 부지로부터 생산능력 36.4만ℓ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주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2020년 8월에 238,000㎡ 부지에 25.6만ℓ의 생산능력을 갖춘 4공장을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말에 완공함으로써, 총 생산능력 62만ℓ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게임, OTT, 학습)의 성장과 함께 IT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전송량이 증가함에 따른 데이터 처리 장비 제조업 및 데이터 처리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경우,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 개발업체인 '센스타임(SenseTime·商湯)'과의 협업 의향서도 체결했다.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녹색기후기금 금융산업 집적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기업인 블루웨일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IFEZ가 블록체인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블루웨일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분야 유망기업 및 기관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IFEZ 내 미래 핵심 부품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의 고용유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에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된 GCF 사무국이 2015년에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여 당초 약속하였던 기금이 조성되지 못함으로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이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매년 1,000억 달러씩 8년간 조성하기로 하였던 녹색기후기금도 순조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하여 GCF 사무국도 대폭 확대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녹색기후기금 관련 금융산업의 글로벌 허브도 기대된다.

### 6.5.2 청라국제도시

- 하나금융타운 집적화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타운(246,671㎡)의 1단

계 사업인 통합데이터센터를 2017년 6월에 구축한 데 이어, 2단계 사업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176,107㎡ 부지에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에 준공하였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캐피탈 등 13개 국내 관계사 직원뿐 아니라 전 세계 24개국 183개 글로벌 네트워크에 소속된 해외 직원들의 교육 및 네트워킹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 금융인력 양성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타운 3단계 사업으로 하나금융그룹 헤드쿼터(HQ)를 2021년 8월에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HQ에는 주요 계열사 및 시설들이 집적화돼 홍콩발 금융허브를 청라국제도시로 이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 6.5.3 영종국제도시

- 항공정비(MRO) 집적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샤프에비에이션K의 항공정비단지로는 항공정비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므로 2019년 11월에 인천공항 제4활주로 서북측 1,640,000㎡에 제2항공정비 단지를 조성해 격납고 17개를 조성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준공 후 임대방식으로 국내외 정비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엔진정비업체와 항공부품정비업체의 유치도 적극 요구되고 있다.

-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집적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I (IBC-I)에는 파라다이스시티 2단계 사업으로 연면적 185,015㎡ 규모에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연장, 비즈니스호텔,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을 COVID-19 경제위기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

이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III(IBC-III) 4-1 구역에는 2016년 8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부지면적 507,320㎡)가 2031년까지 4단계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성급 최고급 호텔 3동(1,256실 규모), 1만 5,000석 규모의 아레나, 컨벤션 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1-A 단계 시설은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2019년 5월에 착공하고, 2021년 말까지 준공하여 2022년 6월경에 개장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 픽처스 실내 테마파크 등 1-B 단계 시설은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6월에 착공하고, 2025년경에 개장할 예정이다.

• UAM 및 Vertiport 구축

인천광역시의 '개인형비행체(PAV)' 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사업을 통해 인천이 '항공모빌리티'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UAM은 PAV 개발부터 제조·판매·인프라 구축·서비스·유지·보수 등 도심 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포함하며 국내 대기업도 UAM사업부를 구성한 후 PAV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UAM체계와 Vertiport 구축 및 PAV 등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도심간 미래형 공항 접근교통체계를 구현해 인천국제공항 이동·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PAV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모선정 이후 2018년부터 PAV 산업 육성에 집중해 2021년까지 다양한 PAV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9년 '인천광역시 PAV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PAV산업 지원을 법제화하였다. 2019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항경제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종합 시험·인증클러스터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신용덕, 2020).

〈표 13〉 IFEZ 외국인투자FDI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2018~2019, 단위: 백만 달러, 개)

연도	외국인투자FDI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비고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8	6,363	4,739	767	11,869	67	13	6	86	
2019	7,188	4,819	768	12,775	67	14	6	87	

〈표 14〉 IFEZ내 사업체수(2018~2019, 단위: 개)

연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8	1,658	887	494	3,039
2019	1,692	945	638	3,275

〈표 15〉 IFEZ내 인구 및 외국인(2018~2019, 단위: 명)

연도	인구				외국인				비율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8	139,580	74,704	97,744	312,028	3,276	1,335	885	5,496	1.8%
2019	159,326	89,316	107,970	356,612	3,675	1,607	996	6,278	1.8%

## 6.6 주요 성과 (P)

IFEZ는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혁신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투자유치 다변화, 기 입주기업의 전후방 연관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 및 연구기관 중점 유치, 선도기업과 벤처·창업기업 간 혁신생태계 조성, 첨단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0).

글로벌 기업들과 국제기구 등이 밀집된 IFEZ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여건 등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 중이다. 그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인 AI(인공지능), 바이오, 블록체인 분야 기업들의 입주에 주력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11월 현재 2020년 FDI 목표액의 83%인 5억4,7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 Ⅷ. 결론 및 시사점

### 7.1 추진 주체의 변화 (S)

인천광역시 민선 시장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출신의 시장들이 번갈아가며 시장을 역임하였다.

민선 1기의 최기선 시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수진영으로 당선되었으며, 민선 2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당적을 변경하여 진보진영으로 당선되었다. 민선 3, 4기 안상수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보수진영으로 당선되었으며, 민선 5기 송영길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에 진보진영으로 당선되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세워 보수진영으로 당선되었고,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세워 진보진영으로 당선되었다.

IFEZ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기선 시장, 유정복 시장, 박남춘 시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은 대통령과는 반대진영의 시장이었지만 중앙정부와 직접 또는 소속 정당의 정치인과 협력하여 IFEZ의 현안을 풀어 나갔다(유승원, 조필규, 2015). 특히,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대학,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사업이었지만, 최기선 시장은 Tri-port 정책으로 개발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안상수 시장, 송영길 시장, 유정복 시장, 박남춘 시장은 Tri-port 정책을 확대 계승한 Penta-port 정책으로 개발모형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실천하였다.

2003년 IFEZ 지정과 펜타포트 정책이 추진된 지 17년이 경과하면서, 박남춘 시장과 제6대 이원재 청장은 트라이포트 정책을 확대 계승한 펜타포트 정책을 수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IFEZ의 보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펜타포트 정책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보기술(IT) 활용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FEZ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 펜타포트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Octa-port 정책 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며, 3가지 추가 정책 설정은 다음과 같다.

- (1)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접착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시켜 온 교육 인프라(R2)를 산학협력중심인 사이언스파크 구축으로 전환하는 “Edu-port” 정책의 설정,

- (2)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화를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과 IFEZ 및 수도권과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새로운 Mobility와 자율주행을 우선적으로 IFEZ에 구축하기 위한 PAV와 UAM을 결합한 “Verti-port” 정책의 설정,
- (3) IFEZ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화와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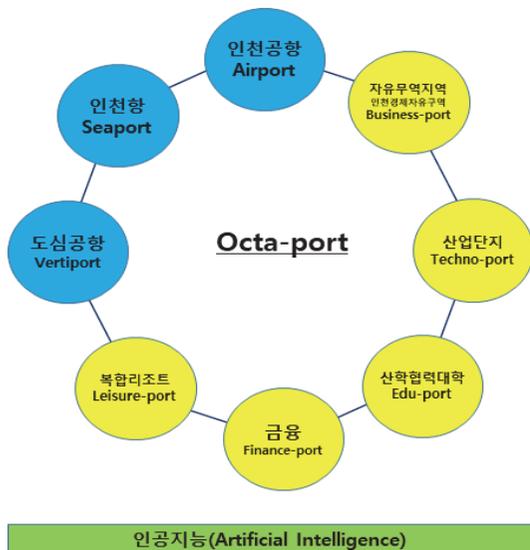
께 홍콩발 글로벌 금융허브 이전을 수용하기 위한 첨단 금융기법을 대표하는 Fin-tech,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Finance-port” 정책의 설정이다. 특히, 대중국실물경제와 민주주의강화라는 기반이 금융허브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표 16〉 인천광역시 민선 시장별 역점시책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책방향

구분	인천광역시장	역점 시책	정책 방향	IFEZ 청장
1기	최기선시장 -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 1995.7.1-98.6.30	1. 쾌적하고 정감있는 도시로 발전 2. 지역경제 활성화 3. 차질없는 도시교통 대책 수행 4.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시정구현 5.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6. 세계화를 향한 힘찬 발전	트라이포트 구축 인프라 구축	
2기	최기선시장 - 자유민주연합 - 1998.7.1-2002.6.30	1. 지역경제의 활력 살리기 2. 시민 삶의 질 높이기 3. 안전한 도시 만들기 4. 투명한 시정 펼치기	트라이포트 구축 인프라 구축	
3기	안상수시장 - 한나라당 - 2002.7.1-2006.6.30	1. 복지도시 실현 2. 문화도시 창조 3. 환경도시 지향 4. 지식도시 구현 5. 국제도시 건설	IT기반 펜타포트 구축1 인프라 구축	제1대 이환근청장 (2003.10~2008.4)
4기	안상수시장 - 한나라당 - 2006.7.1-2010.6.30	1. 동북아의 경제중심 구축 2. 선진문화예술기반 향상 3. 경쟁력 있는 인천인 육성 4. 시민 삶의 질 대폭 향상	IT기반 펜타포트 구축2 인프라 구축	제2대 이현석청장 (2008.4~2010.7)
5기	송영길시장 -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 2010.7.1-2014.6.30	1. 도약하는 대인천경제 2. 균형있는 동반성장 3.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4. 성공적인 아시안게임 5. 건전한 재정운용	IT기반 펜타포트 실현 첨단산업 유치	제3대 이종철청장 (2010.7~2015.6)
6기	유정복시장 - 새누리당, 한나라당 - 2014.7.1-2018.6.30	1. 풍요로운 시민의 삶 2. 역동적인 세계도시 3. 인천만의 가치창조 4. 시민중심 시정실현	IT기반 펜타포트 성숙 첨단산업 성숙	제4대 이영근청장 (2015.8~2017.7) 제5대 김진용청장 (2017.9~2019.5)
7기	박남춘시장 - 더불어민주당 - 2018.7.1-2022.6.30	1.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2.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3.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4. 내 삶이 행복한 도시 5.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IT기반 펜타포트 첨단산업 집적화	제6대 이원재청장 (2019.7~ )

자료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articles/178>) 내용 재구성

IFEZ는 지정당시 2020년까지 개발사업을 대부분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22년까지로 연장되었고 다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에 송도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영종국제도시의 생활폐기물, 하수도, 공원·녹지, 옥외광고물, 도로 관리업무를 연수구청, 서구청, 중구청으로 1단계 이관하였다. IFEZ 개발사업이 2030년까지 연장되더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재검토하여 일반행정 관련 업무는 대부분 연수구청, 서구청, 중구청으로 2단계 이관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FEZ 내에 지정운영되고 있는 송도테크노파크, 인천지식정보산업단지, 청라첨단지방산업단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등은 새로운 관리주체를 설립(인천테크노파크 또는 인천첨단산업단지공단)하여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2022년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의 첨단산업 집적화를 위한 개발과 투자유치 등 전략적 업무에 집중하는 역할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인공지능(AI) 기반 옥타포트 정책, 연구자 작성

따라서, IFEZ는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일원화된 추진주체에서 연수구청장, 서구청장, 중구청장 등의 추진주체가 추가 참여가 강화됨으로써, 여러 추진주체가 협업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될 것이다.

## 7.2 글로벌 투자유치환경 전망 (E)

### 7.2.1 4차 산업혁명과 경쟁 격화

전세계가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혁신·융합 기술의 등장에 따라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온라인-오프라인 경계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플랫폼 선점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국가 차원의 제조업 혁신을 통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이며, 서비스업 또한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성장 동력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IT중심의 클러스터이지만 구글, 아마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인공지능기술, 뇌과학 기술, 바이오 기술, 항공우주 기술 등과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

### 7.2.2 규제 개혁의 부진

IFEZ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경제특구 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해당되어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대기업 공장 신·증설 불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 등 이중적 규제에 묶여 있다. 비슷한 규제를 갖고 있던 일본은 총리 주도하에 7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2014. 5.), 첨단의료, 농업 등의 지역의 관련 기업들이 특례를 활용한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도 3개의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 혁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략적인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표 17〉 시 기반 옥타포트 구축(첨단산업 허브화)정책(2022~2030)의 목표

옥타포트	Airport	Seaport	Business port	Techno port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 4단계 (2018~24) 건설</li> <li>- 인천국제공항 5단계 (2025~30) 건설</li> <li>- 인천국제공항 2단계 항공MRO 단지 개발</li> <li>- 공항경제권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신항 1-2단계 (2019~2025) 건설</li> <li>- 인천신항 1-3단계 (2026~2030) 건설</li> <li>- 인천남항국제여객부두 3단계 확장</li> <li>- 인천남항 유어선부두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셀트리온 3공장 (2023~25)</li> <li>-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 지역 3단계 (2020~21) 기업유치</li> <li>- 인천남항 아암물류 2단지 (2006~25) 건설</li> <li>- 인천신항배후물류 단지 1단계(2015~25) 건설</li> <li>- 인천국제공항 배후 밀라노디자인시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항공일반산단 추진 (2007~ )</li> <li>-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단지 관리주체 정립</li> <li>- 스마트제조혁신</li> </ul>
옥타포트	Leisure port	Edu port	Vertiport	Finance port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남항 골든 하버</li> <li>- 영종한상드림 아일랜드</li> <li>- 파라다이스시티 2단계 (2022~24)</li> <li>-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1-B단계(2021~25), 2,3, 4단계 (2024~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하대 사이언스파크</li> <li>- 인천대 사이언스파크</li> <li>- 연세대 사이언스파크</li> <li>-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2020~2026) 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M</li> <li>- PAV 개발 및 상용화</li> <li>- Vertiport 네트워크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금융타운 3단계 HQ 이전 (2021~24)</li> <li>- Fin-tech</li> <li>- 블록체인과 암호화폐</li> </ul>
핵심기술	인공지능(AI)			
철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2020~2024)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선 추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남항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추진 제2경인선 추진 / GTX-B 노선 추진 / GTX-D 노선 추진 부평-연안부두 트램 추진 / 제2인천국제공항철도 추진			
도로	제3연륙교 추진 /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추진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 추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특례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정부의 각종 특례에서 제외되었다.<sup>6)</sup>

7.2.3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중국, EU에서 촉발된 자국시장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변국 등과의 협력관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과 동남아

6) 규제특례법은 수도권 외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신규 개방조치에 집중하는 규제완화의 집중 시험장으로 중국의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2013. 9.) 지정 이후 외국인투자 “negative list” 전환, 금융·법률서비스분야 개방 확대 등의 규제개혁 조치가 광둥성, 텐진시, 푸젠성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등 동아시아 국가는 지리적 인접성 등 여러 이점을 감안할 때, 산업간 연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와 관련된 제도화는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거리적 인접 등으로 높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나, 일본, 러시아 등은 FTA 체결논의가 부진하고, 중국, ASEAN 등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등으로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일부 인용). 거리적 인접 등으로 높은 파급효과가 예상되나, 일본, 러시아 등은 FTA 체결논의가 부진하고, 중국, ASEAN 등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등으로 그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파악된다(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일부 인용).

### 7.3 교통인프라 구축 (R1)

인천광역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은 동북아의 물류 허브이자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투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1) Airport 정책: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을 2024년에 완료하면 2025년부터 5단계 건설을 추진하여 2030년에 항공여객 1억 3,000만명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또한 인천국제공항 2단계 항공MRO 단지를 4단계 건설과 병행하여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항공여객 1억 3,000만명 처리능력에 부합하는 공항경제권 계획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COVID-19 이후의 기대되는 항공여객 처리능력 확대에 함께 중국, 몽골 등과 민간 인비자면제가 실현되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중앙아 등과 항공노선의 대폭 증가 예상 및 북한과의 항공노선 개설도 기대 된다.
- (2) Seaport정책: 인천신항 1-2단계 건설을 2025

년까지, 인천신항 1-3단계 건설은 2030년까지 추진하여 인천항에서 500만TEU이상의 컨테이너물동량을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3단계 확장과 인천남항 유어선부두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중국과의 정기카페리노선 추가 및 북한과의 정기해운노선 개설도 기대 된다.

- (3) 철도정책: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과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선과 광명역 연장선 추진, 그리고 중장기과제로 제2경인선, GTX-B노선, GTX-D노선, 제2인천국제공항철도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 (4) 도로정책: 제3연륙교, 남북경협확대를 대비한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포함하는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남항-인천신항-안산구간 및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를 조기 개통할 것이 요구된다.

### 7.4 교육인프라 구축 (R2)

IFEZ에 입주한 인하대, 인천대, 연세대 등이 첨단산업, 국제물류, UAM, 국제금융,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요구된다. 즉, 각 대학의 사이언스파크에는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와 항공융합 클러스터 등 기존 첨단산업과 연계된 산·관·학·연 융합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개발연한이 정해져 있는 IFEZ 특성상 학교 부지의 저밀도 활용 보다는 산·관·학·연 융합연구와 창업 등 연구단지 형태의 중·고밀도 집적화로 활용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 중심의 인재육성과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 명문대 공동캠퍼스인 인천글

로벌캠퍼스는 1단계 조성을 통해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SBU)와 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유학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는 종합대학보다는 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랭킹 우수대학, 음대와 디자인대 등 예술대, 호텔·관광 등 전문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 7.5 첨단산업 유치 및 집적화 실현 (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투자유치 핵심분야로 ① 바이오산업, ② ICT산업, ③ 물류산업으로 선정하고 3개 분야 간 상호 융복합의 특성을 살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최적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 (1) 바이오산업: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앵커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CMO, CRMO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 바이오 파운드리 산업을 육성하여 IFEZ가 한국 최초의 바이오 파운드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VID-19 이후 한국의 의료 및 방역체계, 진단키트의 우수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외국인 기업의 유치 혹은 조인트 벤처(JV) 등을 통한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주변의 가용 가능한 수준 높은 인프라와 결합한다면, 외국인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병원, 가천길병원, 부평성모병원, 인천국제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극지연구소, 이원생명과학연구원 등의 연구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기업체 등이 있으며, 의약품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의약품 제조기업과 연계 가능

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세브란스 병원의 입주가 2028년으로 연기된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

- (2) ICT 산업: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함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로 의료장비 등 산업 육성에 유리하다. 수도권 데이터 허브 지향 Data Center와 함께 Open Data Platform, Data Dam(Digital New Deal) 등의 사업 추진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바이오와 디지털 산업을 연계한 Digital-Bio산업의 경우, Bio-informatics, 바이오전자, 생체정보인터페이스, 생체정보보호, 바이오컴퓨터, 바이오 데이터센터 등의 산업 유치가 요구된다.
- (3) 물류산업: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로지스틱스, IoT, 로봇 자동화기기, AI, 3D 프린팅,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기술연구소 등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디지털 산업과 연계한 물류, 즉 Digital Logistics의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ICT와 블록체인을 연계한 물류 플랫폼 구축, 업무용 서비스 로봇 개발, 물류배송 자동화, 대형건물의 옥외 및 옥내 운송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과 운송기술을 융합한 솔루션 산업 육성, 무인항공기시험인증클러스터 연관 드론기업 육성 등이 기대된다. 아울러 바이오와 연계한 물류는 Bio-Logistics로 약물과 생체물질 운송이나 제약분야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투명하고도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목적으로 한 산업의 육성도 요구된다.
- (4) 기타 중점 과제: 이들 중점 세 분야 이외에
  - ① 송도국제도시의 엠코테크놀로지 및 영종국제도시의 스테칩팩코리아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산업의 집적화, ② 인천국제공항 항공MRO 단지 및 송도국제도시 항공우주산업산학융합지구를 결합한 항공산업의 집적화, ③ 서부산단

〈표 18〉 IFEZ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전망(2023~2030, 단위: 백만 달러, 개)

연도	외국인투자FDI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비고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9	7,188	4,819	768	12,775	67	14	6	87	
2025	12,500	6,000	1,500	20,000	110	60	30	200	
2030	17,500	10,000	2,500	30,000	150	100	50	300	

〈표 19〉 IFEZ내 사업체수 전망(2023~2030, 단위: 개)

연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8	1,658	887	494	3,039
2019	1,692	945	638	3,275
2025	2,000	1,300	700	4,000
2030	6,900	2,700	1,400	10,000

〈표 20〉 IFEZ내 인구 및 외국인 전망(2023~2030, 단위: 명)

연도	인구				외국인				비율
	송도	영종	청라	계	송도	영종	청라	계	
2019	159,326	89,316	107,970	356,612	3,675	1,607	996	6,278	1.8%
2025	200,000	150,000	120,000	470,000	5,900	2,000	1,500	9,400	2.0%
2030	250,000	200,000	150,000	600,000	12,000	5,000	3,000	20,000	3.3%

의 LG전자 인천캠퍼스(전기자동차 배터리)와 PAV와 UAM 및 Vertiport 등을 결합한 뉴모빌리티의 집적화, ④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컨벤시아, 영종국제도시의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시저스, 한상드림아일랜드 복합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MICE산업의 집적화, ⑤ 송도국제도시의 녹색기후기금(GCF),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청라국제도시의 하나금융타운(하나금융그룹 본사), 영종국제도시의 국제금융유치와 연계하여 홍콩발 금융허브 이전을 수용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집적화 등이 203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추진하여야 할 첨단산업 집적화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7.6 주요 성과 전망 (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IFEZ는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창출 구역으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금액은 2019년 현재 128억 달러에서 2030년에 3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외투기업은 2019년 현재 87개에서 2030년 3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FEZ 역내 입주기업은 2019년말 3,275개에서 2030년 1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FEZ 소재 녹색기후기금(GCF) 활동이 활성화되면 관련 국제기구도 대폭 확대될 것이며, 외국인은 2019년 현재 6천여명에서 2030년 2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IFEZ 역내 총인구는 2019년 현재 35만 7천여명에서 2030년 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IFEZ는 초기에는 청라국제도시가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중기에는 송도국제도시가 중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2022년 이후 2030년까지는 영종국제도시가 중점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都市는 아직 개발 여력이 많기 때문에 중도밀도 첨단산업 집적화가 진전될 것이며, 영종국제都市는 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무의 등 개발여지가 매우 많고 인천국제공항의 비약적 발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항공물류산업, 항공MRO산업, 복합리조트산업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공항경제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방향으로 성장을 지속한다면,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연수구, 청라국제도시가 속한 서구, 영종국제도시가 속한 중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특히, 2030년 IFEZ 사업의 일몰에 대비하여 2022년 이후에는 연수구청장의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집적화에 대한 참여, 서구청장의 청라국제도시 첨단산업집적화에 대한 참여, 중구청장의 영종국제도시 첨단산업 집적화에 대한 참여 방안을 제도화하여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IFEZ와 원도심이라는 두 바퀴가 올바른 방향성과 균형을 갖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단, 주안국가산단, 부평국가산단 등의 첨단산업 집적화의 통합적 추진, 청라국제도시와 서부산단, 검단산단, 계양산단 등의 첨단산업 집적화의 통합적 추진, 영종국제도시와 기존 산단 등의 첨단산업 집적화의 통합적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IFEZ와 원도심간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철도정책과 도로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 7.7 종합 및 시사점

한국은 유럽연합, 미국, 중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자 52개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장점을 배경으로 한 IFEZ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은 매우 높다.

이에 IFEZ 개발 시한인 2030년까지 COVID-19으로 초래된 미증유의 글로벌위기를 극복하고, 펜타포트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옥타포트(Octa-port)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중심의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Edu-port정책, 미래운송수단을 내재화하기 위한 Verti-port정책(도심공항),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배출제로정책을 견인하는 녹색기후기금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Fin-Tech를 결합한 Finance-port 정책을 펜타포트정책에 접목하면서, 펜타포트정책의 IT(정보기술)기반을 옥타포트정책의 AI(인공지능)기반으로 심화시키는 구상이다. 특히 COVID-19에 의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글로벌 바이오기업’ 주도로 Edu-port에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이 강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 (1) IFEZ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IFEZ에 속해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시설, 글로벌 서비스경쟁력 1위, 동북아 최고의 지리적 입지 등을 배경으로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중동, 북미 및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으로 글로벌 항공물류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3시간 내 비행시간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61개, 20억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므로 첨단산업 유치에도 유리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IFEZ는 인천국제공항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고,

스마트시티로써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갖춘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들이 입주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 (2) 4차 산업혁명형 첨단기술 강화: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위기에서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의 중견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바이오, 철강,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IFEZ는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며, ICT 분야의 경우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IFEZ 입주기업들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 IFEZ는 정부 정책과 민간투자자의 주요 관심대상지역이자 수도권권을 배후로 둔 세계적 기술보유 기업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IFEZ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미래 자동차, 에너지산업을 산업혁신성장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IFEZ의 기술과 인적자원이 결합된 성공적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있다.

요약하면, IFEZ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 덕분에 바이오산업, ICT산업 등 첨단산업 집적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IFEZ에는 이처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 최고의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국제도시로써 바이오 R&D, 생산, 물류 측면에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인프라, 인공지능인프라,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등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SER-M 모델을 적용하여 지방정부의 역대 시장재임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본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2030년 글로벌 경제특구의 모델이자 첨단미래도시로서 최고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IFEZ의 미래를 확신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Andrews, K.(1971),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Richard D. Irwin.
- Cho, D. S. and J. S., Jung (2004), "The Existence and Usefulness of Mechanism on International Growth," *Journal of the Korean Strategic Management Association 2004 Summer Conference*, 329-402. [printed in Korean]
- Cho, D. S.(1997), *Strategic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Seoul, IBS. [printed in Korean]
- Cho, D. S.(2006), *Management M: The 4th Strategic Paradigm*, Seoul, Hans Media. [printed in Korean]
- Cho, D. S., Y. C., Lee and K. C., Park (2001), "A Study on eMechanism of Internet Companies," *Strategic Management Study*, 4, 1-21. [printed in Korean]
- Choi, B. G. and J. C., Choi(1990), *Review of the feasibility of investme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2nd training bridge*,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printed in Korean]
- Choi, J. C.(2020), "[Inkyung Forum] From Pentaport to Octaport Policy," (December 6, 2020), Incheon Ilbo, . [printed in Korean]
- Han, G. S.(2020), "Completion of the Incheon

- Aviation Industry-Academic Convergence District Campus and Corporate Research Center,” (October 28, 2020), Financial News.
- Han, M. S.(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ongdo New Town: Focusing on the IT Cluster Projec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nted in Korean]
- Han, O. S.(2019), *Analysis of Strategic Factors for Attracting Global Distribution Centers-Focusing on the case of the Incheon Airport Logistics Complex*,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printed in Korean]
- Huh, D. H.(2018), *Incheon, Talking about the Free Economic Zone*, Incheon, Book Publishing Dine Art. [printed in Korean]
- Huh, J. Y. (2016), “[3million Incheon] Minus hands, failed projects-Eight City,” (November 23, 2016), Money S. [printed in Korean]
- IFEZ Authority(2020), “Incheon Free Economic Zone, held the final report on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establishment service,” Press release dated October 7, 2020.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Corporation(2019), “Incheon Airports Corporation signs a concession agreement to expand Incheon Airport cargo terminal with DHL, a world-class express delivery company,” Press release on October 15, 2019. [printed in Korean]
- Kang, J. W.(2018), “Incheon City, promoted the designation of 3 additional Free Economic Zones,” (February 6, 2018), Korea Economic Daily.
- Kim, H. J.(1999), “[*Incheon Economic History in the Scene*] (17) *Songdo Media Valley*,” (June 10, 1999), Incheon-ilbo, . [printed in Korean]
- Kim, J. W. and Y. J., Ahn(2006), “Background and Driving Forces of the Development of the Free Economic Zone in Korea: Focusing on the Songdo Free Economic Zone in Incheon,” *Korea Urban Geographical Association*, 9 (3), 79-87. [printed in Korean]
- Koo, J. W. and Y. C., Lee(2007), “Longitudinal Study on the Use Frequency and Relative Importance of Variables in the Study of Enterprise Growth Stages: Focusing on Derivation of Productivity Factors Using the Ser-M Framework,” *Productivity Journal*, 21, 131-171. [printed in Korean]
- Koo, J. W. and Y. C., Lee(200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ubject, environment, resources, and mechanism factors on business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12(2), 105-133. [printed in Korean]
- Kwak, A. N.(2017), “*Incheon Robot Land will be reassembled*,” (October 25, 2017), Incheon-ilbo, [printed in Korean]
- Kwon, O. H.(2006), “Comparis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System i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Free Economic Zone in Korea and the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Zone in China,” *Local Government Research*, 10(4), 283-301. [printed in Korean]
- Lee, H. S. (2019), “IFEZ, ‘Leap’ as a semiconductor industry mecca,” (September 8, 2019), Herald Economy. [printed in Korean]
- Lee, J. W., K. C., Park and J. C., Choi(2004), *A Study on Establishment of Pentaport-type Logistics Strategy for Ports in the Metropolitan A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ha University.
- Lee, Y. T. and E. S., Kong(2011),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mega-event policy environments and policy network changes,” *Tourism Research Thesis*, 23(3), 79-106. [printed in Korean]
- Park, H. S. (2013), “Stats Chip Korea Confirmed to Move in to Incheon Airport Free Trade Zone

in 2015,” Ajou Economic Daily, July 31, 2013. [printed in Korean]

Park, K. C. and J. C., Choi(1998), *Seaport Incheon’s Directions, 21st Century Incheon’s Urban Management*, Inha University Management Research Center. [printed in Korean]

Park, K. C.(2015), *Professor Kichan Park on Strategic Management, Incheon*, Inha University Press.

Roh, J. I., M. J., Kwak and J. W., Seo(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auguration of the mayor of Incheon and the emphasis on policy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Incheon Studies*, 1(28), 131-163. [printed in Korean]

Shin, Y. D.(2020), “Institutionalization and Alternative Strategies of Drone Industry Polic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Incheon Drone Cluster,” *Incheon Institute IDI Urban Research*, 2020(17), 9-61. [printed in Korean]

Yoo, B. Y.(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Smart City in Songdo Incheon: From U-City to Smart City*,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printed in Korean]

Yoo, S. W. and P. G., Cho(2015), “Local Government Heads and Financial Evaluation: Focusing on the Political Cooperation of Regional Heads, Entrepreneur Experience and Tenure of Office,” *Local Government Research*, 18(4), 1-21. [printed in Korean]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White Paper (2010). [printed in Korean]

IFEZ Authority(2008), 5-year achievements and vision of IFEZ opening. [printed in Korean]

IFEZ Authority(2013), 10th anniversary achievements and vision. [printed in Korean]

IFEZ Authority(2020), Incheon City Council Report on Major Businesses of the 259th Industrial

Economic Committee. [printed in Korean]

IFEZ White Paper(2005). [printed in Korean]

## 국내참고문헌

강준환(2018),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3곳 추가 지정 추진,” 한국경제, 2018년 2월6일자.

곽안나(2017), “인천로봇랜드 다시 조립한다,” 인천일보, 2017년 10월25일자.

구자원, 이윤철 (2009).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 요인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략경영연구**, 12(2), 105-133.

구자원, 이윤철(2007), “기업성장단계 연구에 있어 변수의 사용빈도 및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중단적연구: ser-M Framework을 활용한 생산성요인 도출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21, 131-171.

권오혁(2006),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283-301.

김준우, 안영진(2006),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동인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지리학회**, 9(3), 79-87.

김청우(2015), “‘제2의 개항’ 인천신항 본격 운영,” 인천일보, 2015년 6월1일자

김홍전(1999), “[장면으로 보는 인천경제사] (17)송도미디어밸리,” 인천일보, 1999년 6월10일자.

노재인, 곽민지, 서진완(201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장 취임사와 역점시책의 연관성 고찰,” **인천학연구**, 1(28), 131-163.

박기찬, 최정철(1998), **Seaport 인천의 지향점, 21세기 인천의 도시경영, 제1판**, 인하대 경영연구소.

박준철(2017), “인천공항 ‘제2의 개항’ 대한항공·델타·에어프랑스·KLM 탑승객은 제2여객터미널로 가야,” 경향신문, 2017년 12월18일자

박홍서(2013), “스태츠칩코리아 2015년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확정,” 아주경제, 2013년 7월31일자.

신용덕(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

- 화와 대안전략: 인천 드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IDI 도시연구**, 2020(17), 9-61.
- 유병윤(2019),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유승원, 조필규(2015), “지방자치단체장과 재정평가: 광역 단체장의 정치적 협력, 기업가 경력과 재임기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4), 1-21.
- 이연택, 공은숙(2011), “지역 메가이벤트 정책환경과 정책 네트워크 변화 관계분석,” **관광연구논총**, 23(3), 79-106.
- 이재욱, 박기찬, 최정철(2004), 수도권 항만의 펜타포트형 물류전략 수립방안연구, 해양수산부, 인하대학교.
- 이홍석(2019), “IFEZ, 반도체산업 메카로 ‘도약,’” **헤럴드경제**, 2019년 9월8일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20),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2020년 10월7일자 보도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2019), “인천공항공사, 세계적 특송기업 DHL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확장 실시협약 체결,” 2019년 10월15일자 보도자료.
- 조동성(1997), 21세기를 위한 전략경영, 제1판, 서울, IBS.
- 조동성(2006), **M 경영: 제4의 전략패러다임**, 서울, 한스 미디어.
- 조동성, 이윤철, 박기찬(2001), “인터넷 기업의 eMechanism 에 관한 연구,” **전략경영연구**, 4, 1-21.
- 조동성, 정진섭. (2004), “The Existence and Usefulness of Mechanism on International Growth,” **한국전략경영학회 2004년도 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329-402.
- 최병국, 최정철(1999), 제2연육교 건설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인천발전연구원.
- 최정철 (2020), “[인경포럼] 펜타포트에서 옥타포트 정책으로,” 인천일보 2020년 12월6일자.
- 한갑수 (2020),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기업 연구관 준공,” **파이낸셜뉴스**, 2020년 10월28일자.
- 한미섭(2008), 송도신도시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IT 클러스터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옥순(2019), 글로벌배송센터 유치를 위한 전략요인 분석
- 인천공항 물류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물류학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허동훈(2018),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제1판, 인천, 도서출판 다인아트.
- 허주열(2016), “[300만 인천] 마이너스의 손, 실패한 사업들 - 에잇시티 등 역대급 ‘공염불,’” **머니 S**, 2016년 11월 23일자.
- IFEZ(2013), 개청 10주년 성과와 비전.
- 인천경제자유구역백서(2005)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08), IFEZ 개청 5년 성과와 비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13), IFEZ 개청 10년 성과와 비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20), 인천시의회 제259회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 인천세계도시축전백서(2010)

## Success Mechanism of Attracting and Accumulating High-tech Industries in IFEZ

Ching-Woo Kim\* · Jeong-Chul Choi\*\* · Kichan Park\*\*\*\* · Won-Jae Lee\*\*\*\*

### Abstract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shows a role model for attracting investment, accounting for 70% of the total FDI of \$18.3 billion in 7 Free Economic Zones,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f \$12.7 billion as of the end of 2019. The population of IFEZ, which was only 25,000 at the time of 2003 when it was designated as a Free Economic Zone(FEZ), has soared to more than 360,000 as of the end of August 2019,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from 3 to 87 and tenant businesses from 673 to 3,275. This study analyzed the challenging process and innovative achievements of IFEZ's outstanding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for hub of knowledge and innovation in Northeast Asia as a leading foreign investment city among 7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Through this, the focus was on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Incheon as well as other Free Economic Zones(FEZs). To this end, the "SER-M model", which is useful for comparing competitivenes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ng mechanisms, was applied. The development subject variable is the mayor of Incheon(Subject: S), the environment for attracting investment(Environment: E) as the environment variabl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Resource 1: R2) and education infrastructure (Resource 2: R2) as resource and core competency variables, and operation as a mechanism variable, it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attraction activities of major industries(Mechanism: 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success of IFEZ, which was launched in 2003, is the success of the previous mayors and IFEZ Commissioners who have expanded and developed the core competencies of Seaport and Airport into Tri-port and Penta-port policies. It was also found

---

\* Director, Economic Affairs, Incheon-Ilbo: Ph.D, First Author

\*\* Professor, Inha University; Outside Direct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uthority,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Inha University; President, Korea Society for Sustainable Management, Co-Author

\*\*\*\* Commissioner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Authority(wjlee1@korea.kr), Co-Author

that this was due to the consistent efforts of the subject groups and the mechanism of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Key Words: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Tri-port, Penta-por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SER-M model